

『簡易辟瘟方』에 기재된 돌림병의 예방과 치료

이윤심, 조원준¹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¹한국한의학연구원

Prevention and treatment of epidemics written in *Ganuibeokobang*

Lee Yunsim, Chough Wonjoon¹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of Wonkwang University, ¹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s epidemics were spread over the whole *Pyeongan* province at 1524, *Jungjong* commanded the government officers like *Kim Sunmong* to publish *Sokbyeokobang*, known as *Ganuibeokobang*, to cope with the epidemics. They regarded the cause of epidemics as abnormal climate, pathogen or grudge, and named the disease on the basis of cause. To prevent epidemics they presented three kinds of method. They used a charm to calm the people, used *Sohaphyangwon* to keep from getting infected with them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sanitation. They proposed compound herb remedies like *Sipsintang*, *Hyangsosan*, *Seungmagalgeuntang* and so forth according to the symptoms. They presented lots of single herbs used for food or easily seeking herbs to lighten the people's expense, in addition.

key words : epidemics, *Kim Sunmong*, *Sokbyeokobang*, *Ganuibeokobang*, *Sohaphyangwon*, *Sipsintang*, *Hyangsosan*, *Seungmagalgeuntang*

I. 서론

조선 중기에는 小氷期라는 이상기후로 饑饉과 돌림병의 피해가 어느 때보다도 심하였다.¹⁾²⁾ 이에 정부는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모작과 이양법을 도입하였으며, 돌림병을 막기 위하여 救療政策과 의서 편찬사업을 실시하였다.³⁾

1524년(중종 19년)에 평안도 전역으로 溫疫이 크게 유행하여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다. 이에 중종은 金順蒙 등에게 金安國이 세종 때 간행한 『辟瘟方』을 언해한 『諺解辟瘟方』(1518)을 바탕으로 『醫方類聚』의 治疫方을 抄錄하

여 『續辟瘟方』(1525)을 간행하여 대처케 하였다. 이 『續辟瘟方』은 그 후 『簡易辟瘟方』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⁴⁾

이러한 조선시대 돌림병에 대하여 권복규⁵⁾, 변정환⁶⁾, 김호⁷⁾, 신동원⁸⁾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 1) 이태진, 「소빙기(1500~1750) 천변재이 연구와 조선왕조실록」, 『역사학보』, 1996:203.
- 2) 김호, 「16세기말 17세기 초 '역병' 발생의 추이와 대책」, 『한국학보』, 일지사, 1993:131-134.
- 3) 김호, 「동의보감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의학론」, 서울대학교원 박사논문, 2000:24-49.
- 4) 조원준, 「16~17세기 조선의 벽역의서를 통해 살펴본 온역학의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06:19(2):32-33.
- 5) 권복규, 「조선 전기의 역병 유행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원 석사논문, 1999.
- 6) 변정환, 「조선시대의 역병에 관련된 질병관과 구료시책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대한보건협회, 1985:11(1).
- 7) 김호, 상계서.
- 8)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

□ 접수 ▶ 2007년 2월 16일 수정 ▶ 2007년 4월 6일 채택 ▶ 2007년 4월 16일
□ 교신저자 ▶ 조원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49 Fax 042-863-9463 E-mail wjcho@kiom.re.kr

의사학적인 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각 벽역전문의사와 이들 의서에 기록된 돌림병들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벽역신방』 연구⁹⁾의 후속으로 『간이벽은방』에 기재된 돌림병의 예방과 치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돌림병의 발생과 대책

중종 19년(1524년) 가을에 관서지방(평안도)에서 돌림병이 발생하여 이듬해 봄까지 많은 사망자를 내었는데 이를 金希壽는 『간이벽은방』의 서문에서 “갑신년 가을에 관서지방에 모진 역병이 크게 일어나 전염으로 재앙이 되어 사람이 많이 죽기를 을유년 봄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¹⁰⁾고 하였다.

이에 중종은 “밤낮으로 걱정하여 온갖 祈願法을 거행하지 않음이 없었고, 또 醫官을 나누어 파견하여 약을 가지고 구하라”¹¹⁾고 하였다.

또한 벽역의서를 간행, 배포함으로써 스스로 예방하고 치료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정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여전히 충분하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특별히 行副護軍 신 金順蒙과 禮賓寺主簿 신 劉永貞과 前內醫院正 신 朴世舉에게 명하시어, 여러 가지 방문에서 뽑아 瘧疫을 고칠 방법을 纂輯하여 한 편의 책을 만들라고 하시거늘, 이름을 간이벽은방이라 하여 諺文으로 번역하여 인쇄하고 내외에 반포하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비록 누추한 시골의 후미진 골목이라도 다 방문을 의지하여 구해 살게 되었으니 진실로 성상의 호생하시는 덕과 상할까 하는 어짐이 아니시면 어찌 여기까지 미치셨겠는가. 아아 그 지극하심이어”¹²⁾

지」, 1989;11(1).

9) 조원준, 「17세기 초 조선에서 유행한 당독역에 대한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04.
 10) 김순몽 외, 『간이벽은방』, 한국한의학대계38권, 여강출판사, 1992.3. 歲甲申秋에 關西路에 厲疫大作하여 傳染爲災하여 民多夭札을 至 乙酉春히 不熄이라
 11) 상계서, p.3. 上이 夙夜憂揚하사 凡祈告之典을 靡有不學하시고 又分遣醫官齎藥 餌하여 以救之하라
 12) 상계서, pp.3-4. 尙尙未周하사 特命行副護軍 臣 金順蒙과 禮賓寺主簿 臣 劉永貞과

이러한 『간이벽은방』의 간행은 돌림병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의학적으로 통일된 대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비록 궁벽한 시골에서 의사를 통해 직접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의서를 읽고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언해를 附記하여 언문만 알아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돌림병의 病因 및 命名

돌림병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그 병이 時氣, 溫熱 등의 병과 서로 같은데, 모두 일 년 중에 節氣가 不和하고 寒暑가 어그러지며 혹 심한 바람과 몹시 내리는 비 및 안개와 이슬이 흩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흔히 역병에 걸린다”¹³⁾고 하였다. 이는 돌림병의 발생 원인으로 이상기후 등의 외적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돌림병의 명칭에 대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서로 비슷하여 마치 모진 귀신에 들린 것 같았기 때문에 疫癘病이라 하였다”¹⁴⁾고 하였다. 이는 비록 사람들의 병증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귀신의 소행이라고 간주하여 명명하였다고 한 것이나 ‘疫¹⁵⁾’이라는 말 자체에 많은 사람이 동일한 증상으로 병들었다는 뜻을 내포하므로 ‘역려병’이라고 한 것은 많은 사람이 비슷한 증상의 병에 들었는데 그 病情이 매우 혹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병인과 결부하여 “역병이 발생하는 것은 도량이 흘러가지 않아 더러운 惡氣가 혼중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땅에 사람이 많이 죽은 기운이 가득 쌓였다가 폭발해서 일어나기도 하며 관리가 확대하고 억압하여 원망으로 인해 일어나므로, 세상에서 獄溫, 傷溫, 墓溫, 廟溫, 社溫, 山溫, 海溫, 家溫, 竈溫, 歲溫, 天溫, 地溫 등이라 이르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⁶⁾라고 하여 악기와 怨毒에 의해서도 돌

前內醫院正 臣 朴世舉하사 抄諸方治瘧之法을 纂爲一篇하라하시니 名曰簡易辟瘧方이라하여 讎以方言하여 印頒中外하니 使人人易曉 하야 雖窮村僻巷이라도 皆得依方하여 救活하니 苟非聖上好生之德과 如傷之仁이면 何以及此시리오 吁라 其至矣신저

13) 상계서, p.9. 其病이 與時氣 溫熱等病으로 相類니 皆由一歲之內에 節氣不和하며 寒暑乖候하며 或有暴風과 疾雨와 霧露不散하면 則民多疾疫病이라
 14) 상계서, p.9. 無長少히 率皆相似하여 如有鬼竊之氣라 故로 云疫癘病이라
 15) 허신, 『실문해자』, 중화서국, 1989:156. 疫 民皆疾也
 16) 김순몽 외, 상계서, pp.10-11. 疫之所興은 或溝渠不泄하여 其穢惡蒸蒸而成者하며 或地多死氣鬱發하여 而成者하며 或官吏枉抑하여 怨讟而成者하니 世謂獄溫 傷溫 墓溫 廟溫 社溫 山溫 海溫 家溫 竈溫 歲溫 天溫 地溫等이니

림병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원인을 기초로 하여 병명을 정했다.

3. 돌림병의 예방법

돌림병의 예방법에 대하여 “病氣가 서로 전염하여 쉽게 멀문과 다른 사람에게 파급되는 데 이르기 때문에 모름지기 미리 약을 먹고 法術을 시행하여 방지해야 한다”¹⁷⁾고 하여 그 예후가 불량하므로 미리 예방에 힘을 강요하였다. 또한 이러한 예방법에 대하여 “옛 법의 屠蘇酒, 務成子螢火元, 李子建殺鬼煎, 老君神明散이 모두 벽역법이다. 특히 劉根이 쓴 別傳에서 고을을 다스리는 관청¹⁸⁾의 大歲¹⁹⁾六合²⁰⁾ 처에 해당하는 땅을 파되 깊이를 삼척으로, 너비도 삼척으로 하고, 깨끗한 모래 석 섬을 가져다 매워 無灰酒²¹⁾ 석 되를 그 위에 붓고, 고을 원님²²⁾으로 하여금 빌게 하였으니 이것도 疫氣를 제거하는 좋은 술법이다. 태세육합이라는 것은 태세에서 기운이 새어나오는 곳이므로 이곳에 제사지내 역병을 물리친다”²³⁾고 하였다. 당시에는 도소주 등과 같은 약물에 의한 의학적인 예방법과 더불어 미신적인 기원법도 같이 병행하였다. 또 다른 주술적 방법으로는 “역병이 든 집에 문병 갈 때에 오른손 중지로 ‘次’ 자를 써서 짝 쥐어라”²⁴⁾고 하였다. 또 “항상 鷄鳴時에 마음속으로 四海神의 이름을 3-7번 읊으면 온갖 邪氣와 惡鬼를 물리칠 수 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瘟疫에 걸리지 않게 한다. 만일 환자의 방에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3번 읊으면 더욱 좋다. 주문하여 東海神 阿明, 南海神 祝融, 西海神 巨乘, 北海神 禺強이라고

不可不究라

17) 상계서, p.9.

病氣가 轉相染하여 易乃至滅門과 延及外人이라 故로 須預服藥과 及爲法術하여 以防之하라

18) 주치는 주를 다스리는 관청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 태세는 목성과 태세신을 의미하는데 옛날에는 땅에 있는 태세신이라는 하늘의 목성과 통한다고 생각했다.

20) 육합은 상하와 동서남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사망의 중심을 말한다.

21) 순주는 無灰酒를 말하는데 무회주는 석회(술을 만들 때 술이 시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회를 약간 넣음)를 전혀 넣지 않은 술을 말한다.

22) 사군은 한나라에서 주의 자사를 높여 부른 말로 곧 지방관을 말한다.

23) 상계서, p.11

古法의 用屠蘇酒와 務成子螢火元과 李子建殺鬼煎과 老君神明散이 皆辟法이어나와 惟劉根의 別傳에 令於州治의 大歲六合處에 穿地 馱深三尺이요 闊亦如之하고 取淨沙三斛하여 實之하여 以醇酒 三升으로 沃其上하고 俾使君으로 祝之하니 此亦消除疫氣之良術이라 所謂大歲六合者는 歲泄氣之所在라 故로 以厭禳이라

24) 상계서, p.33.

又方 問病於疫家에 以右手中指로 書次字握固하라

말하라”²⁵⁾고 하였다. 이러한 사해신명의 암송은 唐의 巢元方이 처음으로 그의 저서인 『諸病源候論』²⁶⁾에 기입하면서 서 의서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후 조선의서인 『의림촬요』나 『동의보감』은 물론 벽역서인 『간이벽은방』, 『분문온역이해방』, 『신찬벽은방』 등에서 온역의 예방법으로 빠지지 않고 기재되다가 후에 허준이 『벽역신방』을 저술하면서 이러한 주술적 방법을 극복한다.²⁷⁾ 또 “‘元’, ‘梵’, ‘恢’, ‘漢’ 네 글자를 붉은 朱砂로 써서 차고 다니며 삼켜라”²⁸⁾고 하였다. 또 “‘籊’, ‘籊’, ‘籊’, ‘籊’ 네 글자를 붉은 것으로 써서 문 좌우변에 붙여라”²⁹⁾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비록 미신적이기는 하나, 돌림병의 유행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상황에서 해당 지방의 책임자가 경건히 기원을 드림으로써 민심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또한 돌림병의 방역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도 돌림병의 예방과 방역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의학적인 예방법으로는 蘇合香元을 사용하여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밀납종이에 1환을 탄자크기만하게 써서 붉은 비단 주머니에 넣어 심장부근에 달면 일체의 사된 귀신이 감히 근접하지 못한다. 온역이 발생한 집에 들어갈 때에 먼저 문을 열고 큰 술에 물 두 말을 담아 집 가운데서 20환을 달이게 하면 그 향이 역기를 없앤다. 모든 환자가 각각 한 잔을 마신 후에 의사가 들어가 진찰하면 서로 전염되지 않는다”³⁰⁾고 하였다. 이것은 소합향원을 구성하고 있는 麝香 등의 방향성 약물과 朱砂 등이 병원체를 약화시키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림병 환자와 직접 접촉할 때에도 “역병이 발생한 집에 들어가 서로 전염되지 않게 하려거든 石雄黃을 곱게 갈아

25) 상계서, p.34.

又方 常以鷄鳴時에 心念四海神名三七遍하면 可辟百邪惡鬼하며 令人不病瘟疫이라 如入病人室에 心念三遍尤好라 呪曰 東海神阿明 南海神祝融 西海神巨乘 北海神禺強하라

26) 소원방, 『제병원후론교석』 하책, 인민위생출판사, 1982:1453. 養生方導引法云 常以鷄鳴時 存心念四海神名三遍 辟百邪止鬼 令人不病 東海神名阿明 南海神名祝融 西海神名巨乘 北海神名禺強

27) 조원준, 「17세기 초 조선에서 유행한 당독역에 대한 연구」, pp.72-73.

28) 상계서, p.35.

又方 元梵恢漢四字을 朱書하여 佩之하며 吞服하라

29) 상계서, p.35.

又方 ‘籊’, ‘籊’, ‘籊’, ‘籊’ 등四字를 朱書하여 貼門左右邊하라

30) 상계서, p.14.

用蠟紙하여 裹一丸如彈子大하여 緋絹袋盛하여 當心帶之면 一切邪神이 不敢近이라 凡入瘟疫家에 先令開啓門戶하여 以大鍋盛水 二斗하여 於堂中心에 用二十圓煎하면 其香이 能散疫氣하느니라 凡病者가 各飲一甌後에 醫者却入하여 診視면 不致相染하느니라

물에 풀어서 붓에 많이 문혀 콧구멍 속에 바르면 환자와 같이 앉아서 서로 전염되지 않으니, 세수한 후와 누워 잘 때에도 바르라. 모든 온역병이 발생한 집은 저절로 악기가 생기므로 그것을 맡으면 곧 泥丸宮으로 올라가 흠어져 百脈에 들어가 서로 전염되니 만약 갑작스러워 약이 없으면 참기름을 코끝에 바르고 또 종이를 맡아 코를 간지럽혀 재채기를 하게 하면 좋다” 31)고 하였다. 이것은 돌림병 환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금지하지만 의사나 환자의 가족들처럼 어쩔 수 없이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석유향과 참기름을 이용하여 예방토록 한 것이다. 석유향으로 향균시키는데 만일 이것도 없으면 참기름으로 외부 사기에 대한 방어벽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비강 점막을 통해 병사가 침입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차단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 “집에 시역이 들거든 처음 병든 사람의 의복을 빨아 깨끗이 하여 밥짓는 술에 짜면 곧 병이 전염될 걱정이 없다” 32)고 하였다. 돌림병은 흔히 환자나 사망자의 의복과 생활용품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이것들에 대한 청결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부터 당시에 이미 위생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복합 처방에 의한 돌림병의 치법

『간이벽온방』에서는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소합향원과 十神湯을 돌림병 치료에 있어서 주요 처방으로 기재하고 있다.

소합향원은 “鬼氣와 時氣와 鬼魅를 치료하니 매번 복용할 때에 4환을 따뜻한 물에 풀어서 복용해라. 따뜻한 술도 괜찮다” 33)고 하였다. 소합향원은 일체의 氣病을 치료하기 때문에 中氣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처방이다. 그러므로 돌림병의 邪氣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합향원은 위에 언급한 대로 치료보다는 예방의 목적으로 더 중요시하였다. 다만 돌림병으로 人事不省이나 昏冒 상태가 지속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十神湯은 “時令이 맞지 않아 온역이 妄行하는 것과 感冒로 발열하는 것을 치료한다” 34)고 하였다. 이 처방은 芎藭散과 升麻葛根湯의 합방에 麻黃이 가미된 처방으로 『동의보감』에서 風寒邪에 감축되어 머리가 아프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땀이 나지 않는 傷寒表證, 傷寒陽證 등에 썼다.35) 그러므로 돌림병 초기에 땀을 내서 사기를 없앤다. 그러나 외감 증상과 소화기 증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궁지향소산이 오히려 승마갈근탕의 작용을 방해한다. 만일 소화기 증상이 없이 고열이 主證이라면 승마갈근탕만 쓰는 것이 낫고, 소화기 증상이 主證이라면 궁지향소산만 쓰는 것이 낫다. 그러나 평소 소화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돌림병에 걸린 이후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경우라면 두 처방이 합방된 십신탕이 좋은 효과를 낸다.

십신탕을 구성하는 처방 중 향소산에 대하여 “四時瘟疫와 傷寒을 치료한다” 36)고 하였다. 이 처방은 방제 구성상 돌림병 환자가 內傷 食積을 겪하였을 경우 적합한데 대부분 川芎과 白芷를 가미하여 궁지향소산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승마갈근탕은 “傷寒과 時疫으로 두통, 오한발열하는 것을 고치며 또 겸하여 춥고 더운 것이 때에 맞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역병에 걸린 것을 치료한다”37)고 하였다. 이와 같이

31) 상계서, p.16.

入疫家하여 不相染키든 雄黃을 研細水調하여 以筆濃蘸하여 塗鼻竅中하면 與病人同床이라도 亦不相染하니 初洗面後及臨臥時에도 點之하라 凡瘟家是 自生惡氣하니 聞之면 卽上泥丸하여 散入百脈하여 轉相傳染하니 若倉卒無藥이어든 以香油로 抹鼻端하고 又以 紙로 擦探鼻하여 嚏之가 爲佳니라

32) 상계서, p.33.

又方 家染時疫이어든 卽初病人衣服을 浣洗令淨하여 飯甌中蒸之하면 卽無傳染之患이라

33) 상계서, p.14.

蘇合香元은 治鬼氣와 時氣와 鬼魅하니 每服에 四丸을 溫水에 調服하라 溫酒亦可하니라 老少可服一丸空心服之하라

34) 상계서, pp.20-21.

十神湯은 治 時令不正으로 瘟疫妄行과 感冒發熱이라 川芎 甘草炙 麻黃去根 乾葛 升麻去蘆 白芷 陳皮 香附子炒去毛 赤芍藥 紫蘇葉 各四兩 右剉散하여 每服에 三錢을 水一盞半과 薑五片으로 煎七分하여 去滓하고 熱服호대 不以時候하라

35) 허준, 『동의보감』.

雜病 寒 傷寒表證, 十神湯○治兩感風寒 頭痛 寒熱 無汗 雜病 寒 傷寒陽證, 陽證 頭痛 身熱 脈浮數 宜…十神湯 雜病 寒 傷寒表證, 表證 宜…十神湯…

36) 김순몽 외, 상계서, pp.18-19.

香蘇散은 治 四時瘟疫과 傷寒이라 香附子炒去毛四兩 甘草炙一兩 紫蘇葉四兩 陳皮不去白二兩 蒼朮切片未[米]泔浸炒黃二兩

右爲羅末하여 每服에 三錢을 水一盞으로 煎하여 七分이어든 去滓하고 熱服하되 不拘時하여 日三服하라 嘗有白髮老人이 授此方與一富人家어늘 其家合[台]施當大疫하여 城中病者가 皆愈하니 其後에 疫鬼가 問富人어늘 富人以實告하니 鬼曰 此老教三人矣라하고 稽顙而退하니라

37) 상계서, pp.22-23.

升麻葛根湯은 治 傷寒과 時疫으로 頭痛 增寒壯熱하며 及兼治 寒暄不時하여 人多疾疫이라

升麻 白芍藥 甘草 各一兩 葛根一兩半

右剉散하여 每服에 四錢을 水一盞半으로 煎하여 取一中盞이어든 去滓稍하고 熱服호대 不計時候하여 日二三服호대 以病氣去는 身清涼으로 爲度하라

십신탕을 구성하는 향소산과 승마갈근탕을 병기한 것은 돌림병을 치료할 때 정확히 변증하여 필요한 약제만을 선별하여 사용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외에 屠蘇酒는 “疫氣를 물리쳐 사람으로 하여금 온병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 38)고 하였고, 螢火丸은 “주로 疫病과 惡氣와 百鬼를 물리친다” 39)고 하였으며, 虎頭殺鬼元은 “온병을 물리친다” 40)고 하였고, 神明散은 “疫癘를 물리친다” 41)고 하였으며, 逼瘟丹은 “이를 태우면 온역을 물리친다” 42)고 하였다. 이와 같은 처방들은 예방을 위한 소합향원과 치료를 위한 십신탕의 보조적인 처방으로 사용된 것 같지만, 약재가 너무 강렬하고 또한 구하기 힘들거나 고가의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다.

5. 단방의 활용

돌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복합 처방과 별도로 단방을 많이 응용하였는데 “측백나무 중에 동쪽으로 난 잎을 채취하여 말려서 곱게 갈아 탕이나 술로 복용하라” 43)고

하였다. 또 “새 포대에 赤小豆를 담아 우물에 2일 동안 담다가 모든 집안 사람이 각각 21개씩을 먹어라” 44)고 하였다. 또 “술잎을 곱게 갈아 한 숟가락을 술로 하루 3번 복용하라” 45)고 하였다. 또 “동쪽으로 자란 복숭아가지를 잘게 잘라 끓여 목욕하라” 46)고 하였다. 또 “물레 쭉으로 환자의 침상 네 모서리에 각각 1장씩 뜯뜨되 환자가 알지 못하면 좋다” 47)고 하였다. 또 “시어진 무나박김칫국을 온 집안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양에 구애받지 말고 먹어라” 48)고 하였다. 또 “설날 아침에 다섯 가지 매운 음식인 파, 부추, 마늘, 염교, 생강을 먹어라. 일명 五辛이다” 49)라고 하였다. 또 “시행역려를 치료하는데 苦參 2냥을 찢어 체에 쳐서 매번 복용할 때 3돈을 술 1잔에 끓여 반잔이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한꺼번에 마시면 바로 낫는다. 또 고삼을 양에 구애받지 말고 물로 끓여 복용하면 낫는다” 50)고 하였다. 또 “작은 마늘⁵¹⁾ 1되를 찢어 즙을 3홉정도 내어 다 복용하면 두 번 먹지 않아도 바로 낫는다” 52)고 하였다. 또 “5월 5일 오시에 먼저 저장하고 있던 약들을 모아 태우면 역기를 물리치거나 그치게 한다. 蒼朮을 태워도 된다” 53)고 하였다. 또 “대나무를 태우면 妖氣를 물리친다” 54)고 하였다. 또 “단오날에 쭉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문 위에 두면 온병을

38) 상계서, pp.24-25.

屠蘇酒는 辟疫氣하여 令人不染溫病이라
大黃 桔梗 蜀椒 桂心 各一兩半 虎杖根 一兩一錢 白朮 一兩八錢 烏頭 六錢
右七味를 吹咀하여 絳袋盛하여 以十二月晦日中에 懸沈井中令至泥라가 正月朔日平曉에 出藥置酒中하여 煎數沸하여 於東向戶하여 飲之호대 屠蘇之飲은 先從小至大하라 一人飲하면 一家無疫하고 一家飲하면 一里無疫하나니 其滓를 三日後에 還置井中하면 大辟瘟疫氣니라

39) 상계서, pp.27-28.

螢火丸은 主辟 疫病과 惡氣와 百鬼라
螢火 鬼箭 蒺藜 各一兩 雄黃 雌黃 礬石燒汁盡 各二兩 羖羊角 鍛窺灰 鐵錘柄入鐵處 各一兩半
右九味를 搗篩爲散하여 以鷄子黃과 丹雄鷄冠一具로 和之하여 如杏仁大하고 作三角絳囊하여 盛五丸하여 帶左臂하라 若從軍엔 繫腰中하여 勿離身하라 若家엔 卦戶上하면 甚辟盜賊이라

40) 상계서, pp.29-30.

虎頭殺鬼元은 辟瘟이라
虎頭五兩 朱砂 雄黃 雌黃 各一兩半 鬼白 皂莢 蕪荑 各一兩
右七味를 末之하여 以蜜蠟으로 和爲元如彈子大하여 絳囊盛繫臂호대 男左女右하며 懸屋四角하며 晦望夜半에 庭中에서 燒一元하라

41) 상계서, p.31

神明散은 辟疫癘라
白朮 附子炮去皮 各二兩 桔梗 細辛 各一兩 烏頭炮去皮 四兩
右五味를 麴搗篩하여 絳囊盛帶之하면 所居閭里皆無病이라 若有疫者는 溫酒에 服方寸匕하고 覆取汗하여 得吐卽差라

42) 상계서, p.46.

逼瘟丹을 燒之면 辟瘟疫라
白檀香 降眞香 馬蹄香 千金草 蒿本 白芷 蒼朮 各三兩 大黃四兩二錢 黃丹四兩 爲衣
右細末을 糊元如彈子大하되 每兩作六丸하라

43) 상계서, p.36.

又方 側柏東向葉을 採取하여 乾正細末하여 或湯或酒로 服之하라

44) 상계서, p.36.

又方 新布袋에 盛赤小豆하여 沈井二日하다가 學家各服二十一介하라

45) 상계서, p.37.

又方 松葉細末一匙를 酒服日三하라

46) 상계서, p.37.

又方 東向桃枝를 細剉煮湯하여 浴之하라

47) 상계서, pp.37-38.

又方 密以艾으로 灸病人床四角에 各一壯하되 不得令病人知之면 佳라

48) 상계서, p.38.

又方 溫蕪菁菹汁을 合家大小히 並服不限多少하라

49) 상계서, p.38.

又方 元日에 食五辛 蔥韭蒜薤薑하라 名五辛이라

50) 상계서, p.39.

又方 治時行疫癘에 苦參二兩搗篩하여 每服에 三錢을 酒一盞으로 煎하여 至半盞이어든 去滓하여 頓服하면 卽差라 又苦參不拘多少하여 水煎服하면 差라

51) 원문에 小蒜은 일반적으로 달래를 말하는데 달래가 벽역 효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언해에도 간마늘로 되어 있으므로 작은 마늘로 번역하였다.

52) 상계서, p.40.

又方 小蒜一升을 搗取汁三合하여 頓服之하면 不過再作便差라

53) 상계서, p.40.

又方 仲夏五日午時에 聚先所蓄時藥燒之하면 辟疫氣或止라 燒蒼朮亦可라

54) 상계서, p.41.

又方 爆竹하면 辟妖氣라

물리친다” 55)고 하였다. 또 “人尿汁은 시행역병으로 고열이 나서 미쳐 날뛰는 것을 치료하며 여러 가지 독을 푸는데, 마땅히 완전히 마른 것을 찼어 가루로 내서 끓는 물에 부어 복용하라” 56)고 하였다. 또 “부인의 月經水⁵⁷⁾도 또한 괜찮다” 58)고 하였다. 또 “5월 5일 정오에 창포술에 옹황을 넣어 마셔라. 이것이 여러 질병을 없애며 온갖 벌레를 없앤다” 59)고 하였다. 또 “온역을 치료할 때에 흰꿀로 빗갈고운 주사 가루 1냥을 버무려 설날 등틀 때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아무 것도 먹지 말고 동쪽 방향을 향하여 서서 삼씨만 하게 3, 7환을 먹되, 치아에 닿지 않게 하라. 아울러 적소두 7개를 삼키고 우물에도 던져 놓아라. 종신토록 이 방법을 잊지 말라” 60)고 하였다. 또 “정월 첫 上寅日에 측간 앞의 풀을 취하여 마당 가운데에서 태우면 온기를 물리친다” 61)고 하였다. 또 “동지에 적소두로 죽을 쑤어 먹으면 疫疾을 물리친다” 62)고 하였다. 또 “제야의 밤에 시호나무를 마당에 쌓아 태우면 재앙을 물리치고 陽氣를 돕는다” 63)고 하였다. 또 “降眞香, 쇠똥, 阜莢을 태우면 또한 좋다” 64)고 하였다. 또 “오한발열하는 邪氣를 치료할 때에 구운 감초 가루 1돈을 소변 3홉에 섞어 저어서 풀어지면 복용하되 낫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65)고 하였다. 또 “溫疾, 山嵐瘴氣를 치

료하며 답답한 것을 없앨 때에, 창출을 잘게 잘라 양에 구어 받지 말고 쌀뜨물에 하루밤 재웠다가 말려 가루를 내어 따뜻한 물에 타서 복용하라” 66)고 하였다. 또 “온역을 물리칠 때 말발굽 가루 2냥을 붉은 비단주머니에 넣어 차되, 남자는 좌측에 여자는 우측에 차라” 67)고 하였다. 또 “돼지의 똥은 天行熱病과 황달을 치료하니, 암돼지의 똥 한 되를 물에 하루밤 담갔다가 찌꺼기는 버리고 한꺼번에 마셔라” 68)고 하였다. 또 “수컷 여우의 똥을 태우면 온역을 제거한다” 69)라고 하였다. 또 “너구리고기는 疫氣와 溫病을 제거하니, 치료할 때에 음식 만들듯이 하여 먹어라” 70)고 하였다. 또 “臘雪水⁷¹⁾는 천행시기와 온역을 치료하니, 약간 따뜻하게 복용하라. 얼음물도 좋으며 지렁이즙도 좋다” 72)고 하였다. 또 “升麻는 온갖 精魅와 老物과 殃鬼를 없애며 癘疫과 瘴氣와 邪氣를 물리치니, 잘게 썰어 한 냥을 물 한 되에 다려 진한 즙을 취해 복용하면 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독기를 吐出한다” 73)고 하였다.

이러한 단방 중에 향유, 적소두, 시어진 무나박김칫국, 파, 부추, 마늘, 생강 등과 같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식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고, 측백엽, 송엽, 복숭아나뭇가지, 쑥, 대나무 등과 같은 것은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인분즙, 부인월경수, 廁前草, 돼지의 분변과 같은 것도 활용하였다. 이처럼 단방을 활용함으로써 복합처방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기재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돌림병의 급박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55) 상계서, p.41.
又方 端午日에 以艾爲人하여 安門上하면 辟溫이라

56) 상계서, pp.41-42.
又方 人尿汁(即野人乾이니 松間者 佳라)은 治時行으로 大熱狂走하며 解諸毒하니 宜用絶乾者를 搗末沸湯沃하여 服之하라

57) 월경수는 천행온역을 치료하니 음열과 혈열에 열독을 해독하고 반진을 제거하는데 나이 어린 부인의 월경혈이 묻은 내의를 취하여 물에 담갔다가 마신다.

58) 상계서, p.42.
又方 婦人月經水도 亦可라

59) 상계서, pp.42-43.
又方 五月五日日中에 飲菖蒲酒에 入雄黃於內하라 謂之辟除諸疾而 禁斷百蟲이라

60) 상계서, p.43.
又方 治溫疫에 白蜜和上色朱砂粉一兩을 以大歲日平旦에 大小勿食하고 向東方立하여 吞三七元如麻子大하되 勿令齒近之하라 并吞赤小豆七枚하고 投井泉中하라 終身勿忘此法하라

61) 상계서, p.44.
又方 正月初上寅日에 取廁前草하여 燒中庭하면 辟瘟氣라

62) 상계서, p.45.
又方 冬至에 赤小豆煮粥食之면 辟疫疾이라

63) 상계서, p.45.
又方 歲除夜에 積柴於庭하여 燒火하면 辟災而助陽氣라

64) 상계서, p.47.
又方 燒降眞香 牛糞 阜莢하면 亦可라

65) 상계서, pp.47-48.
又方 療寒熱邪氣에 炙甘草末一錢을 小便三合으로 攪令散服하되 以差爲度하라

66) 상계서, p.48.
又方 療溫疾 山嵐瘴氣하며 除煩에 蒼朮細切不拘多少를 米泔浸一宿하여 焙乾爲末하여 溫水調服하라

67) 상계서, p.49.
又方 辟瘟疫에 馬蹄屑二兩을 絳囊帶之하되 男左女右하라

68) 상계서, pp.49-50.
又方 猪屎은 治天行熱病 黃疸하니 母猪屎一升을 水宿浸去滓하여 頓服之하라

69) 상계서, p.50.
又方 雄狐糞을 燒之하면 去瘟疫라 糞在木石上 尖頭堅者가 是라

70) 상계서, p.50.
又方 獾肉은 去疫氣 溫病하니 治如食法하여 食之하라

71) 납철수는 납월(신달)에 내린 눈을 받아 저장하여 물이 된 것이다.

72) 상계서, p.51.
又方 臘雪水는 治天行時氣 癘疫하니 小溫服之하라 氷水亦可하며 蚯蚓汁亦可라

73) 상계서, pp.51-52.
又方 升麻는 殺百精 老物 殃鬼하며 辟瘟疫 瘴氣 邪氣하니 細剉一兩을 水一升에 煎取濃汁하여 服之하면 入口卽吐出毒氣라

Ⅲ. 결 론

1524년에 평안도 전역으로 溫疫이 크게 유행하자 중중은 김순몽 등에게 명하여 현재 『간이벽온방』으로 전해 오고 있는 『속벽온방』을 간행케 함으로써, 돌림병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통일된 의학적 대처를 도모하였고, 각자가 스스로 의서를 읽고 대처토록 하였으며, 언해를 부기하여 언문만 알아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이벽온방』에서는 돌림병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이상기후, 악기나 원독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병인을 기초로 하여 병명을 정했다. 돌림병의 예방법으로 첫째, 주술적 방법으로 흥흥해진 민심을 바로 잡고 개인차원에서 돌림병의 예방과 방역을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하였고, 둘째, 의학적 방법으로 소합향원 등을 사용하여 감염되는 것을 막았으며, 셋째, 환자의 의복 등을 삶아 청결하게 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도 중시하였다. 돌림병 치료에 있어서 복합방으로 십신탕을 중시 하였는데, 소화기 장애에 향소산, 고열에 승마갈근탕을 구별하여 병기하였다. 또한 돌림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식용으로 주로 사용하거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방을 많이 제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손쉽게 구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Ⅳ. 참고문헌

1. 이태진, 「소빙기(1500~1750) 천변재이 연구와 조선왕조 실록」, 『역사학보』, 1996.
2. 김호, 「16세기말 17세기 초 ‘역병’ 발생의 추이와 대책」, 『한국학보』, 일지사, 1993.
3. 김호, 「동의보감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의학론」,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2000.
4. 조원준, 「16~17세기 조선의 벽역의서를 통해 살펴본 온역학의 특징」, 『한국의사학회지』, 2006;19(2).
5. 권복규, 「조선 전기의 역병 유행에 관하여」,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1999.
6. 변정환, 「조선시대의 역병에 관련된 질병관과 구료시책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대한보건협회, 1985;11(1).
7.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 1989;11(1).
8. 조원준, 「17세기 초 조선에서 유행한 당독역에 대한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2004.
9. 김순몽 외, 『간이벽온방』, 한국한의학대계38권, 여강출판사, 1992.
10. 허신, 『설문해자』, 중화서국, 1989.
11. 소원방, 『제병원후론교석』 하책, 인민위생출판사, 1982.
12. 허준, 『동의보감』